대학생 전법 '영남결사' 불자로 거듭나

통도사 연합 템플스테이 비롯
수계법회로 삼귀의·오계 수지
영남 11개 대학서 74명 동참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남결사' 템플스테이에 함께한 대학생들과 스님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데 여념이 없다.

"오늘 저희 대학생불자들이 1박 2일간의 영남결사 템플스테이와 수계식을 봉행하오니 지혜의 검과 자비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게 하소서."

유솜이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장의 전법에 대한 간절한 발원이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 울려 퍼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월 20~21일 경내에서 '대학생 전법 영남결사 템플스테이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경상권 대학 불교동아리 연합인 '영남결사'의 4번째 템플스테이 행사인 이번 모임에는 경상국립대·진주교대·부산대·동아대·경남대·창원대·대동대·경북대·영산대·울산대·중앙대 등 총 11개 대학 7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 중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동참한 것.

행사 첫날 고불식에서는 △경과보고 △축사 △발원문 △주지스님 환영사에 이어 사물 관람과 스님과의 차담이 진행됐다. 이어진 둘째 날은 △새벽예불 △수계식 △사리탑 참배 △주지스님 덕담 및 선물 전달 △소원지 쓰기가 있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종교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 생명에게 행복과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미래의 주인공들을 모셨는데 불교가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하고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 자신과 사회, 국가를 두루 밝힐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불보종찰인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와 수계식을 하는 게 큰 영광이다. 앞으로 불교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하자"고 축사했다.

고불식을 마친 학생들은 방사를 배정받고 사물을 관람했다. 이후 각자의 고민거리와 불교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으며 스님의 지혜를 듣는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 이어졌다. 둘째 날은 영축총림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사, 율감 정본 스님이 인례를 맡은 가운데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발원하는 수계식이 봉행됐다.

덕문 스님은 수계 법어에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아 지니며 여러분에게는 계체가 형성됐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닌 금수저 중의 금수저라는 진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회향식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불자로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날"이라며 "통도사에서 보낸 시간이 대학생활을 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김용진 경상국립대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는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이곳에서 수행과 전법에 힘쓰신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불자들이 의기투합하면 대학생 전법도 지금보다 훨씬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법 의지를 밝혔다.

통도사 측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대학별로 인근 사찰 스님과 대학 불자교수를 지도법사로 선정해 불교학생회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동국대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현장답사

선운사 등 호남 명당들 답사
"현대 맞는 풍수학으로 발전"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회장 도심 스님)가 현장학습을 진행했다.〈사진〉

1월 21일 전북 고창 선운사와 고창군 부안면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학습에는 동문회장 도심 스님, 재홍 스님, 박시익 학술연구원장, 지영학 교수, 이종헌 교수, 김만희 교수 등 동문회원 55명이 참석했다. 현장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새해를 맞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는 자리가 됐다.

현장답사는 고창 선운사와 고창군 부안면 김요협 선산, 정읍 미타사를 답사하고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이론을 점검하며 답사지와 풍수이론의 부합 과정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읍 미타사에서는 담당 교수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또 경담 스님과 보현스님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도심 스님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여러 회원이 참여하는 답사를 하지 못하다가 새해를 맞아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현장답사를 기획했다"며 "특히 고창의 명찰인 선운사와 인촌 김성수의 증조부인 김요협 선산을 답사하는 등 호남지역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다양한 현장답사를 통해 풍수학을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며 "예전의 풍수지리에서 벗어나 현대사회 발전 속도에 걸맞은 풍수학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답사를 주관한 지영학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풍수는 자연을 대상으로 부모가 후손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려는 2000년을 이어온 통계학"이라며 "명당 터라고 알려진 곳의 현장답사를 통해 회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읍 미타사 경오 스님은 "동문회의 호남지역 현장답사가 없어 이번 기회에 고창과 정읍의 명당 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호남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가 계속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개별적인 현장답사 위주로 진행해온 동문회는 앞으로 격월로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산 등 음택풍수는 물론 풍수이론에 맞는 건물의 신축, 가구 배치 등을 다루는 인테리어 풍수 등 현대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풍수이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는 430여 명의 회원이 속해 있으며 건축, 부동산, 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성·실력 갖춘 인재양성 노력"

불교종립 정광고 새 교장에
교법사 출신 영일 스님 취임



"끌려가지 않고 찾아가는 학교, 찾아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좋은 인성과 실력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2일 불교종립 정광고교 제17대 교장으로 취임한 영일 스님〈사진〉의 취임 일성이다.

영일 스님은 지난 2002년 교법사로 부임한 이후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불교를 전했으며, 정광고교 역대 3번째 '스님' 교장이다. 영일 스님은 "역대 교장선생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건학이념에 맞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일 스님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스터디카페(독서실)'를 추가로 건설해 면학 분위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040명의 재학생 중 방과 후 공부를 원하는 4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현재의 240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120여 석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영일 스님은 학교 불교회 활동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불교어머니회의 활성화와 학교 내 설치된 법당에서 기도법회와 불교 성지순례, 불교동아리 활동지원이 그 예다.

영일 스님은 "교법사 시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감화를 주기 위해 늘 수행자의 마음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불교와 스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할"이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학교생활 20년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교법사가 아닌 교장으로서 지역 내 최고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불교, 새해 지역·불교발전 기원

울산불교연합회 · 신도회 등
300여 명 신년인사회 봉행



울산불교종단연합회와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는 1월 24일 해남사 보광당에서 지역 스님과 각급 기관장,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 신년인사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울산불교계가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신년사에서 "어두운 곳에 진리의 빛, 태양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춰 세상을 밝히자"며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이 문화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새해에는 울산시민 모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불교인 모두가 뜻을 모아 더 나은 울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 불교계의 성원과 용의 해 기운을 받아 울산이 승천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며 "올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다툼이 없고 편 가름이 없고, 울산이 평온하고 더 크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정관암 대활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정지심인당 정일 정사, 성불사 혜안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 바라밀선원 주형 스님, 보덕사 효암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신흥사 인경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이병호 전 울산불교신도회장, 김기현·이채익·박성민·서범수·권명호 국회의원, 이진용 울산BBS 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설 명절 앞두고 '자비의 쌀' 나눔

정읍 일광사, 백미 100포 市에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 스님)와 일광사 연꽃신도봉사회(회장 유상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봉사회 불자들은 1월 25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0포를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승천 스님을 비롯해 일광사 총무 정인 스님, 군산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 염불사 주지 혜윤 스님, 군산 도안사 주지 명현 스님, 명효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정인택 대불청 중앙위원,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참석했다.

승천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일광사와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로 이웃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베풀어주시는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승천 스님은 지난 1985년 일광사에 주지로 부임한 후 신도회를 활성화하고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마하연승가회를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지원사업 등 해외구호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34년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야문화원 이사장 혜수 스님 취임

1월 19일 이 · 취임법회 봉행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은 1월 19일 문화원 법당에서 제7대 이사장 성남 스님과 8대 이사장 혜수 스님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이사장에 취임하는 혜수 스님의 헌다에 이어 가릉빈가합창단과 보현합창단의 축가, 은하사 조실 대성 스님의 특별법문이 진행됐다.

대성 스님은 법문에서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났거늘, 부처님의 참된 도리를 알지 못하고 서산에 일락 하듯이 떠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이 하나를 건지고 가자는 것이 불교의 도리고, 부처님의 은지"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는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려우니 마음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8대 이사장 혜수 스님은 "전임 이사장스님들의 노력으로 가야불교문화원을 반석에 올려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가야불교문화원과 김해불교사암연합회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인사했다.

7대 이사장 성남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김해사암연합회가 출범하고 가야불교문화원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혜수 스님을 도와 문화원이 더욱 발전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혜수 스님은 임기 중 가야불교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성남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에 불교가 한반도 최초로 전해졌다는 것은 그동안 스님들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님들의 가르침을 청해 듣고 시민들을 위한 불교계의 사업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취임법회에는 신임 이사장 은하사 주지 혜수 스님, 전 이사장 성남 스님, 은하사 조실 대성 스님, 사무국장 송하 스님, 해광사 범해 스님, 묵암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사암聯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

1월 18일부터 5일간 정진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제10회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를 봉행했다.〈사진〉

울산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불교신도회를 비롯한 신행단체가 주관하는 제10회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는 1월 18일부터 울산KBS홀에서 5일간의 정진을 이어갔다. 법회에는 울산불교연합회회장 해남사 혜원 스님, 백양사 지선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보덕사 효암 스님, 신흥사 인경 스님, 낙서암 진원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과 서동욱 남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자비도량참법기도는 나의 잘못과 남의 잘못을 모두 내 허물로 삼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을 나의 허물로 삼아 기도하는 정신"이라며 "발심하기 전에 중생으로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자비도량참법기도 정진으로 성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도량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시작했다. 울산불교계의 숙원사업인 태화문화센터 건립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며 공덕을 이웃에 회향하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